

하반기 양계사료산업 전망



성 은 일
서부배합사료(주)
연구개발팀 대리

■ 머릿글

2009(己丑)년의 상반기는 많은 국내외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양계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진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계산업의 하반기를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내 양계산업을 조심스럽게 전망하여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2009년 상반기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및 유럽의 경제악화로 인해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국내 경기 또한 급속히 위축되면서 소비심리가 최저점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2월 기준 최근 6개월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육계는 1,888원/kg, 계란(특란)은 서울기준으로 1,426원/10개로 조사되어 지고 있다.

이처럼 육계의 가격은 2008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큰 변동은 없었으나 계란의 경우 다소 오른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하반기 전망에 있어서 환율안정(상반기 : 1,308원 → 하반기 : 1,124원)

및 경기회복세(상반기 : -4.2% → 하반기 : -1.2%)가 상반기 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작은 희망을 엿볼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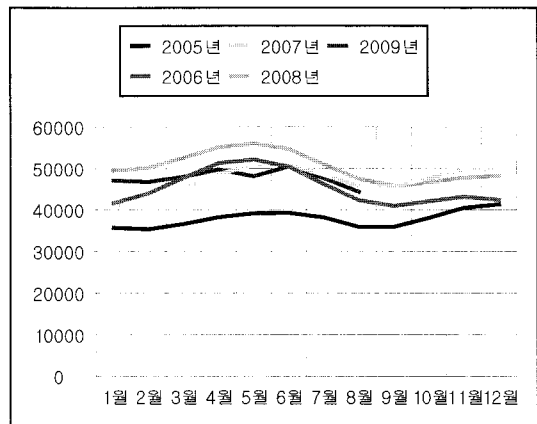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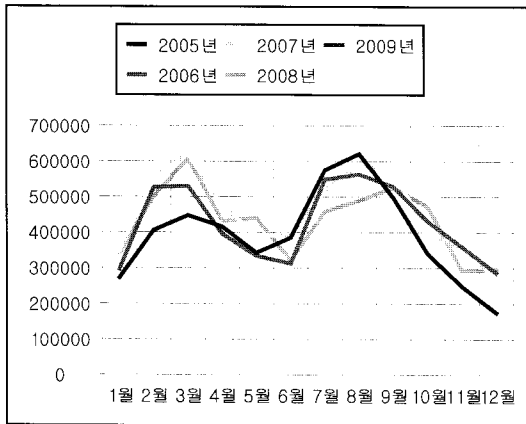
2009년 양계들에게 있어서 HPAI의 비발생은 양계경영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잠재되어 있는 질병을 예방하지 못한다면 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수익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올 하반기 전체적인 양계산업에 대한 전망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본 론

1. 육계

1) 육용종계 입식 현황 및 관련 산업

2008년 12월말 육용종계의 입식현황을 살펴보면 5,210천수로 전년도 대비 5.15% 감소하였으며, 2009년 8월까지의 생산잠재력은 2008년 대비 8.27% 감소 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1〉 육용종계입식현황 및 육용실용계 생산 잠재력, 대한양계협회

2008년의 육용종계사료 배합실적은 2007년도 대비 7.27% 감소되었으며, 육계사료 생산량도 4.56% 감소하였다. 이는 앞선 육용종계의 입식현황 및 생산잠재력과 연관되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하지만 2009년 2월까지의 육용종계사료 배합실적은 전년 동월보다 6.9% 증가하였으며 이는 종계 산란율이 떨어지고 병아리 발생률도 전년에 비해 떨어지는 등 종계의 생산성 저하로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노계군 또는 환우계군의 생산 가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하반기 병아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계의 환우지양과 도태가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닭고기수급 현황

2009년 상반기에는 육계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3월 현재 민간 비축량은 245만 수로 전년 동기보다 54.2%나 감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입량은 전년보다 큰 폭 감소하였다. 또한 계절적 원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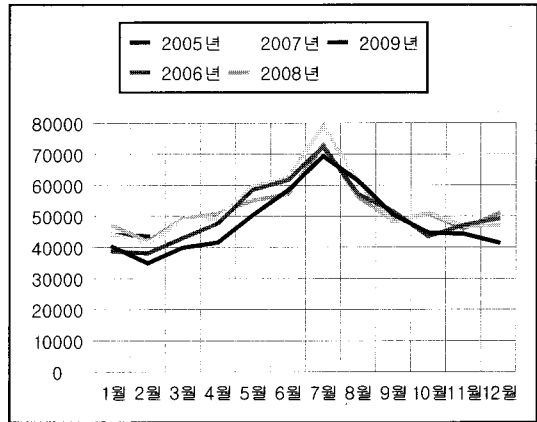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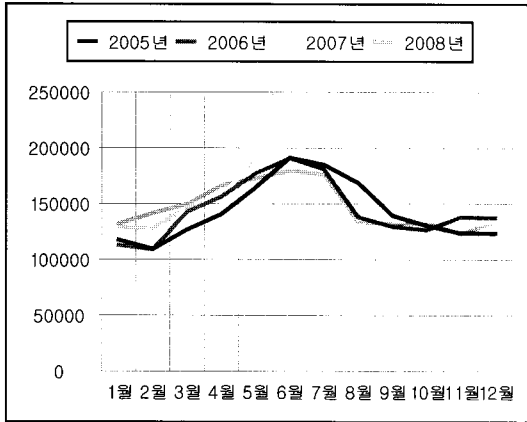
인한 육계의 생산성 저하 및 4월 소비증가로 인한 단기적인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 수입물량이 늘어날 경우 가격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병아리 가격의 상승세로 인한 병아리 품질의 저하로 육계의 생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공급되어지는 물량이 부족할 경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으나 이는 실제적인 양계인들의 수익과는 무관한 상황일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병아리 생산을 위한 종계의 관리와 함께 노계군의 도태 및 종계의 환우를 지양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보다는 실제적으로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만 적정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생산성 향상과 함께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그림 2〉 옥계사료생산실적 및 도축물량, 대한양계협회 및 한국계육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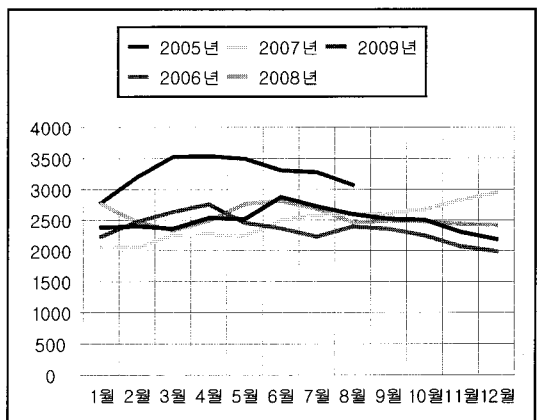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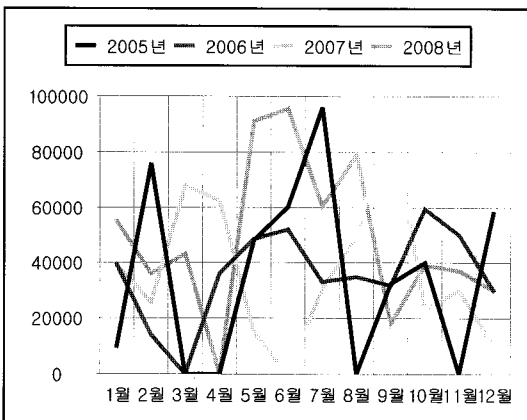
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복되어지는 사항이지만 옥계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계열업체에서의 철저한 사양 관리 및 방역관리와 함께 항생제 비급여에 따른 생산성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양질의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사업인 배합사료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윈-윈관계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2. 산란계

1) 산란종계 입식 현황 및 관련사업

2008년 산란종계의 입식현황은 584,128수로 전년도 대비 29.88% 증가하였다. 2008년 3분기 이후 수입된 산란종계로부터 생산되어지는 산란실용계의 생산 잠재력을 볼 때 이미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9년 상반기부터 잠재력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그림 3〉 산란종계입식현황 및 산란실용계 생산 잠재력, 대한양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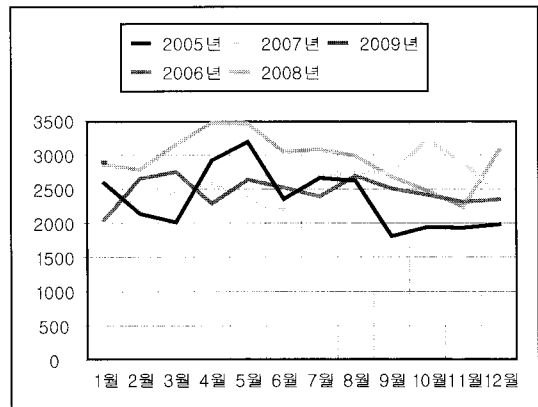
상은 올 하반기까지 다소 감소는 하나 지속되어 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계란 생산량도 증가 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그림 3>

2) 계란 수급 현황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계란가격은 전년대비 다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가격 상승세에 따른 노계군의 생산가담 및 3~5월 신규 진입계군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실용계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여 2009년 6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 동월보다 4.3% 증가한 6,229만수로 전망되어 진다.

이처럼 산란계 사육수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의 요인이 발생 할 수 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계란 생산에 신규 진입하는 계군은 643만수로 예상되어지며 이는 전년 보다 14.9% 증가한 수치이다. 적절한 노계의 도태가 수반되어지지 않을 경우 가격의 하락폭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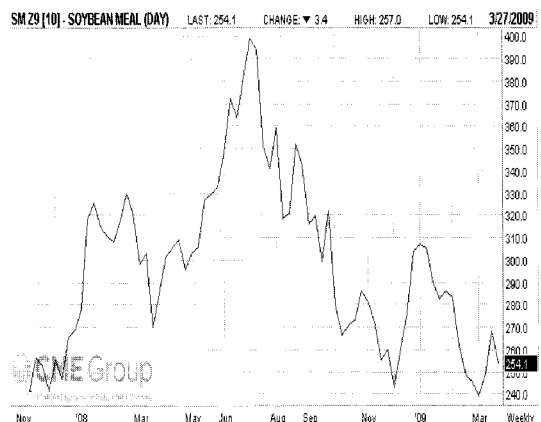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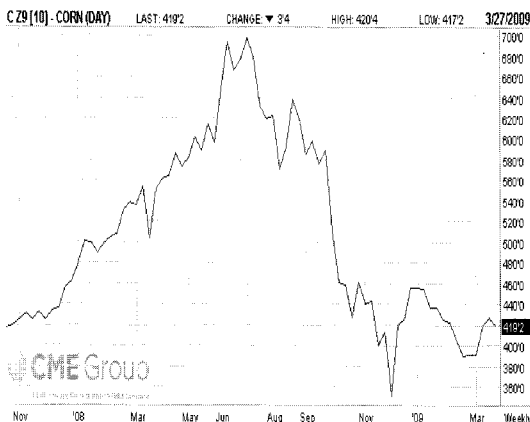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체식품으로의 구매 선호도가 높아지는 호재가 작용하지만 하반기 환율안정세를 바탕으로 하는 수입축산물의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산란실용계 판매수수, 대한양계협회

3. 원료가격 및 환율

2009년 1분기의 환율은 평균 1,434원으로



<그림 5> 국제 옥수수 및 대두박 가격동향, Chicago Board of Trade

사료원료(곡물)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대비 곡물가격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환율의 폭등으로 인해 양계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찾고 곡물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경우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는 낮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합사료 가격과 환율과의 관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환율의 변동은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 및 하락의 요인이 되고 이는 생산비(60%)의 상승과 하락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상승을 최소화 하는 방안은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결론

2009년의 양계산업은 이미 상반기에 많은 국내외적인 악재 속에서 경영악화의 험한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다소 호전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비단 본인과 양계인들의 희망만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양계산업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진 질병의 차단과 그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일 것이다.

질병차단을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과 백신 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영양소 공급을 위한 관련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확립,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양계인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 및 친환경 인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와 다양한 요리법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이 양계산업이 한발 더 성장할 수 있는 한해가 되고, 지금의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우리 양계인들의 수익이 보장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친다. 